

## 고정관념 형성에 미치는 집단대표 정보량의 효과 : 착각적 상관과 집단 평가

전우영·이훈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두 개의 실험을 통해서 착각적 상관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피험자의 집단에 대한 평가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두 집단간의 선호정보량에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수집단 보다 바람직한 소수집단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착각적 상관연구에서 나타나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 평가의 원인이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가정처럼 상대적 정보량, 즉 A선호정보량과 B선호정보량 간의 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에 대한 차별적 평가가 집단을 대표하는, 즉 한 집단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좋은” 혹은 “나쁜” 집단으로 규정하게 하는, 정보량간의 차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아도 추정과 재인의 오류가 발생하고 집단에 대한 차별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의 착각적 상관연구의 결과가 부호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소수집단과 회귀성 정보간의 독특성의 공발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합논의에서는 고정관념의 형성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고정관념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중 하나는 고정관념을 지각자가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으로 구성되는 인지적 구조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인지적 접근중의 하나는 Hamilton과 Gifford(1976)에 의해서 시작된 착각적 상관연구들이다(Hamilton, Dugan과 Trolier, 1985; Pryor, 1986; Spears, Van der Pligt와 Eiser, 1986; Sanbonmatsu, Sherman과 Hamilton, 1987; Acorn, Hamilton과 Sherman, 1988; Schaller와 Maass, 1989).

Chapman(1967)이 제안한 착각적 상관이라는 개념은 관찰자가 두 범주의 사건간의 상관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Chapman(1967)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같

은 횡수로 짝을 이룬 단어쌍들의 빈도를 추정하게 했을 때, 쌍을 이룬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보다 길어서 독특하게 보인, 즉 독특성이 공발생하는 조건의 단어쌍의 빈도를 과대추정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Hamilton과 Gifford(1976)는 착각적 상관이 현실 사회의 고정관념의 형성을 설명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Hamilton과 Gifford(1976)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다수집단 성원들은 소수집단 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이는 통계적으로 희소한 경험이 되고 따라서 독특한 자극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보다 통계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독특한 자극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 집단 성원에게는 소수집단 성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독특한 자극이 공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의 과대추정되고, 이로 인해서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해보기 위한 Hamilton과 Gifford(1976, 실험 1)의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집단 A(B)의 바람직한 행동을 묘사한 18(9)개의 정보와 집단 A(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묘사한 8(4)개의 정보 등 모두 39개의 정보를 제공했다. 두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을 9:4로 동일하게 조작한 것이다. 따라서 집단소속과 행동의 바람직성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단 B는 집단 A에 비해 소수집단이기 때문에 독특한 자극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에 비해서 소수정보이기 때문에 독특한 자극이 된다. 따라서 소수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독특성이 공발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험결과는 Hamilton과 Gifford(1976)의 예언대로 피험자들이 소수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과대지각하고, 다수집단보다 소수집단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우영과 이훈구(1991)는 Hamilton과 Gifford(1976)의 실험결과를 착각적 상관의 가정처럼 소수집단의 회귀성 정보를 과대지각함으로써 소수집단인 B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다. 전우영과 이훈구(1991)에 의하면 Hamilton과 Gifford(1976)의 실험에서 사용된 정보는 A선호정보(A긍정 18+B부정 4)와 B선호정보(B긍정 9+A부정 8)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제 3자인 피험자의 입장에서 A(B)의 바람직한 행동 뿐 아니라 B(A)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도 상대적으로 B(A)보다는 A(B)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정보라는 것이다. 결국 두 집단간의 선호 정보에는 5만큼의 차이가 나게 된다;  $(18+4)-(9+8)=5$ . 그런데 집단간 비교에 있어서 두 집단간 선호정보에 5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 3자의 관점에서는 B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A가 B보다 5만큼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한편 A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B는 A보다 5만큼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피험자는 Hamilton과 Gifford(1976)의 가정처럼 단순히 소수집단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집단 A나 집단 B만을 바람

직/비바람직의 비율에 근거해서 평가했을 때 보다 A는 더 긍정적으로 B는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해 보기위해서 전우영과 이훈구(1991, 실험 1)는 피험자에게 비율에 근거해 정보를 처리하도록 명백한 지시를 준 것을 비교기준으로 설정했다. Hamilton과 Gifford(1976)의 예언대로라면 이 기준과의 비교에서 다수집단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없고, 소수집단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예언에 의하면 비교기준에 비해서 다수집단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수집단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상대비교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의 수를 조작했다. 한 조건에서는 총 36개의 행동 기술문을 제시했는데, 집단 A(B)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 16(8)개와 A(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 8(4)개를 제공했다. 따라서 상대적인 정보량은 집단 A를 선호하는 행동기술문이 4개 더 많은 것이다;  $(16+4)-(8+8)=4$ . 반면 총 9개의 행동기술문을 제시한 조건에서는 집단 A(B)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 4(2)개와 A(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 2(1)개를 제공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의 상대적인 정보량은 집단 A를 선호하는 행동기술문이 1개 더 많은 상황이다;  $(4+1)-(2+2)=1$ . 그런데 36개 정보조건과 9개 정보조건에서 전체정보중 소수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은 4/36와 1/9로 동일하다. 따라서 두 정보조건에서 소수집단의 소수정보가 가지는 독특성의 정도는 동일하다. 결국 Hamilton과 Gifford(1976)의 가정에 따르면 두 정보조건간에서 집단 B에 대한 평가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평가의 개념에 의하면 두 정보조건간에는 상대적인 정보량이 1과 4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보량이 9인 경우보다 정보량이 36인 경우에 집단 A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집단 B는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결과는 전우영과 이훈구(1991, 실험 1)의 예상대로 Hamilton과 Gifford(1976)의 실험을 반복한 정보량 36조건은 비율에 근거한 평가보다 집단 A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집단 B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정보량이 9인 조건보다 36인 조건에서 집단 A는 더 긍정적으로 집단 B는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착각적 상관연구의 피험자들은 다수집단과

다수정보간의 연합된 정도를 과대지각했고, 그 결과 다수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두 집단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났을 것이라는 Rothbart(1981)의 예언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Rothbart(1981)에 의하면 정보량이 36인 조건과 9인 조건에서 집단 A와 연합된 전체정보량중 바람직한 행동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두 정보량조건간에 집단 A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36조건의 A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단순노출효과의 예언에 따르면 정보량 9인 조건의 B보다 36조건의 B가 바람직한 행동과 전체노출양이 네배나 많기 때문에 36인 조건의 B를 9인 조건의 B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이와는 반대인 것이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더불어 착각적 상관연구의 주요문제는 착각적 상관연구의 결과가 Hamilton과 Gifford(1976)의 가정처럼 소수집단의 희소성 정보가 부호화 단계에서 더 특출하게 지각되기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다. 전우영과 이훈구(1991)에 의하면 Hamilton과 Gifford(1976)의 실험에서 조작된 독특성이라는 구인은 실험전에 각각의 개별적인 정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정보의 집합인 범주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39개의 정보가 모두 주어졌을때야 비로소 어느 집단이 소수집단이고 어떤 정보가 희귀성 정보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Hamilton과 Gifford(1976)의 실험에서는 39개의 자극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동기술문을 하나씩 순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자극을 10초씩 제시한다고 하면, 모든 자극을 제시하는데는 6분 30초가 소요된다. 부호화 단계에서 소수집단과 희소성 정보가 어떤것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39개의 행동기술문 모두가 피험자의 부호화 과정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범주의 정보가 독특한가는 모든 정보가 다 주어지고 난 후에야 가능한 것인데 처음의 부호화 단계에서 부터 소수집단의 소수정보는 독특성의 공발생으로 인해 더 주의를 받고 기억에 쉽게 이용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Hamilton과 Gifford(1976)의 실험에서 나타난 지각적인 오류는 과제의 성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에 의하면 빈도추정과제는 그 과제의 특성이 각 집단내에서 나누는 과제인데

비해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 과제는 두 집단간으로 나누는 과제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제의 성격 때문에 소수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과대지각한 것이 착각적 상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수 정보는 과소추정하고 소수정보는 과대추정하는 추정경향의 오류로 인한 결과일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해보기 위해서 전우영과 이훈구(1991, 실험 2)는 실험 1의 36정보 조건에서 다수집단 A를 반으로 나누어 행동기술문상의 집단을 세개, 즉 A, B, C로 만들었다. 따라서 세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각각 8개의 4개로 동일했다. 결국 실험 2에서는 소수집단이 없어서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는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착각적 상관에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자극을 제시하고 난 후에 두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K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따라서 피험자는 종속측정에서 다수집단인 K와 나머지 한 집단, 즉 두 집단만을 비교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는 조건은 사라지지만 종속측정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비교는 실험 1의 36정보 조건과 동등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Hamilton과 Gifford(1976)에 의하면 실험 2에서는 착각적 상관에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집단에 대한 평가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전우영과 이훈구(1991)에 의하면 상대적 정보량이 동등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실험 1과 같은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결과는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예언대로 빈도추정 과제에서 지각적 오류가 발생했고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에서도 지각적 오류의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두 집단에 대한 차별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적 오류와 집단에 대한 차별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기존의 착각적 상관연구의 결과가 부호화 단계의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났을 수는 있어도, 최소한 독특성의 공발생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가 과제의 성격에 기초할 것이라는 가정은 완전히 지지되지는 않았다.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실험 1과 2의 결과는 재인과제의 경우에는 다수집단의 정보는 과소추정하고 소수집단의 정보는 과대추정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빈도추정과제의 경우에는

예상과는 달리 집단에 대한 평가를 반영했다. 즉, 선호도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은 과대추정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과소추정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은 과소추정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과대추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빈도추정과제가 두 집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선호도평가의 결과를 반영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대적 정보량에 기초한 상대비교를 직접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서 실시했다. 실험 1은 두 집단의 바람직/비바람직 정보의 비율이 달라서 한 집단이 실제로는 더 부정적인 집단이지만 상대적 정보량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의 집단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았다. 실험 2는 실험 1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에 대한 평가가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가정처럼 상대적 정보량 때문이 아니라 집단대표 정보량 때문임을 밝혔다.

## 실 험 1

실험 1은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결과가 상대적 정보량에 기초한 상대평가 때문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서 실시했다. 이를 위해서 40개의 행동기술문을 제시했다. 이중 집단 A(B)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은 16(8)개, A(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이 12(4)개였다. 따라서 실험 1에서는 집단 A가 집단 B에 비해서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상에서 더 부정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A선호정보량(A긍정 16+B부정 4)과 B선호정보량(A부정 12+B긍정 8)은 모두 20개로 동일하다. 만약 피험자가 상대적 정보량에 기초한 평가를 한다면 집단 A가 집단 B에 비해서 비율상으로는 더 부정적이지만 두 집단의 선호정보의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집단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없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험 1의 예언은 다음과 같다.

1. 집단 A와 집단 B는 두 집단의 선호정보량이 동등하기 때문에 두 집단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전우영과 이훈구(1991)에서 나타난 것처럼 과제의 성격에 따라 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 방법 및 절차

### 피험자

91년도 1학기 연세 대학교에서 개설된 「인간행동의 심리적 이해」 수강생중 32명이 피험자로 참가하였다. 한번에 2-10명씩 무선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 자극재료

피험자에게 한 페이지에 하나의 행동기술문이 적혀 있는 책자를 통해서 40개의 행동기술문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실험에서 사용된 행동기술문으로 이루어졌다. 각 행동기술문은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개인을 묘사한 것이었다. 행동기술문속의 주인공은 모두 남성이었고, 어느 집단에 속했는가가 묘사되었다(예, 종수는, 집단 A의 성원인데, 비를 맞고 가는 사람과 우산을 같이 썼다; 준호는, 집단 B의 성원인데, 신문의 퍼즐을 반도 못풀고 그만 두었다).

집단 A와 B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의 평균 바람직성의 정도를 같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집단 A와 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의 평균 바람직성의 정도도 같게 만들었다.

그리고 각 집단에 대해서 행동기술문의 내용이 다른 두가지 종류의 책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책자는 양 집단의 행동기술문을 서로 바꾸어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두 집단에 대한 평가가 행동기술문의 내용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대안적인 가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 집단내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각각의 반은 지적인 행동이었고 나머지 반은 사회적인 행동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적 차원과 지적 차원에 기초해서 평가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Rosenberg, Nelson 그리고 Vivekananthan, 1968).

### 절차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Hamilton과 Gifford(1976) 지시조건과 동일한 지시문이 주어졌다.

본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처리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할 시각적인 정보는 특정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묘사한 행동기술문들이고, 이는 카드로 제시됩니다(예,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의 운전수를 도와 차를 고쳤다; 입학한지 3년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들이 받고 달아났다;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서를 냈다). 본 실험에서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행동기술문은 어떤 두 집단 성원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인데,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실험에서 그들은 단지 집단 A 또는 집단 B라고만 언급됩니다. 카드에 적혀 있는 집단 성원들의 행동은 각각의 집단 전체에서 무선적으로 뽑았습니다. 행동기술문들이 주어질때마다 각 문장을 주의깊게 읽어 주십시오.

### 종속측정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 선호도 평정과제, 그리고 빈도추정과제를 실시했다.

###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

피험자들에게 제시한 40개의 문항을 집단소속과 성원의 이름이 없이 단지 행동만 기술해서 다시 제시했다. 피험자들은 서술된 문항이 집단 A나 집단 B중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괄호안에 A나 B로 써넣었다.

### 선호도 평정과제

각 집단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집단 A의 성원들과 집단 B의 성원들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대해 1(매우 싫어함)에서 11(매우 좋아함)까지의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했다. 선호도 평정과제와 집단 소속에 대한 재인과제는 그 순서를 역균형(counterbalance) 시켰다.

### 빈도추정과제

피험자들에게 A와 B 집단을 묘사한 행동기술문의 수를 알려주고 이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묘사한 문항의 수를 추정하라고 지시했다. 빈도추정과제는 피험자로 하여금 실험의 목적을 예상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 실시하였다.

## 결 과

32명의 피험자중 1명이 빈도추정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빈도추정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분석에는 포함시켰다.

###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

각 조건에서 실제로 제시했던 2(집단 A, 집단 B) ×

2(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로 구성되는 네가지 범주의 정보 각각의 수가 피험자가 판단한 네가지 범주의 행동의 수와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했다.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의 평균을 표 1-1에 제시했다.

<표 1-1> 실험 1의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와 빈도 추정과제의 평균

과 제	행동의 바람직성	집 단	
		A	B
재인과제	바람직	14.13** (16) <sup>a</sup> (3.82) <sup>b</sup>	9.88** (8) (3.82)
	비바람직	8.91*** (12) (2.88)	7.09*** (4) (2.88)
빈도추정 과제	바람직	18.35** (16) (3.94)	5.77*** (8) (2.03)
	비바람직	9.65** (12) (3.94)	6.23*** (4) (2.03)

a는 피험자에게 실제로 제시된 행동기술문의 수

b는 표준편차

\*\*  $p < .01$  \*\*\*  $p < .001$

결과를 보면 피험자가 판단한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집단 B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4.13(3.82), 8.91(2.88), 9.88(3.82), 7.09(2.88)로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 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1) = -2.77, p < .01, t(31) = -6.08, p < .001, t(31) = 2.77, p < .01, t(31) = 6.08, p < .001$ ]. 따라서 실험 1의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 과제에서는 다수집단인 집단 A의 행동은 과소추정하고, 소수 집단인 집단 B의 행동은 과대추정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 빈도추정

빈도추정과제도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했다. 빈도추정과제의 평균은 표 1-1에 제시했다.

결과를 보면 피험자가 판단한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집단 B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8.

35(3.94), 9.65(3.94), 5.77(2.03), 6.23(2.03)으로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 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0)=3.33, p<.01, t(30)=-3.33, p<.01, t(30)=-6.11, p<.001, t(30)=6.11, p<.001$ ]. 따라서 실험 1의 빈도 추정과제에서는 다수 집단인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은 과대추정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과소추정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소수 집단인 집단 B의 바람직한 행동은 과소추정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과대추정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정

두 집단을 차별적으로 평가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집단의 평가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집단 A를 7.88(1.62)로 집단 B의 6.16(1.57)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F(1, 31)=12.95, p<.01$ ]. 따라서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두 집단의 선호정보의 양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집단인 A를 소수집단인 B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표 1-2> 실험 1의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균

A	B
7.88(1.62)	6.16(1.57)

( )는 표준편차.

## 논 의

실험 1은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결과가 상대적 정보량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두 집단의 선호정보량이 동등하게 유지되어도 다수집단인 A를 소수집단인 B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상대적 정보량이 상대평가의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전우영과 이훈구(1991) 그리고 실험 1에서 집단 A와 B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더 많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두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는 바람직한 행동을 묘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단 A는 B보다 바람직한 행동의 절대량이 2배나 더 많았다. 따

라서 상대적 비교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 정보량이 아니라 두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량간의 차이를 가정할 수 있다.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에서는 소수집단의 정보는 모두 과대추정하고 다수집단의 정보는 모두 과소추정했다. 이는 두 집단간에 나누는 과제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빈도추정과제에서는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연구에서 처럼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가의 결과를 반영했다. 즉, 다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은 과대추정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과소추정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소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은 과소추정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과대추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빈도추정과제는 각 집단의 바람직/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상을 반영할 것이라는 Schaller와 Maass(1989)의 접근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 실 험 2

실험 2는 실험 1의 논의에서 밝힌대로 두 집단에 대한 차별적 평가가 두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량의 차에 기초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긍정적인 정보가 부정적인 정보보다 많은 두 집단간의 비교는 두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보의 양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될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많은 두 집단에 대한 평가는 두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더 적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될 것이다. 실험 1은 소수집단과 소수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특성이 공발생하는 조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수 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의 과대추정 때문에 소수 집단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라는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이러한 대안적인 설명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했다. 그리고 Hamilton과 Gifford(1976)의 실험 2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가 더 많았던 조건에서도 소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을 과대지각해서 소수 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두 집단을 대표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다수집단이 두배나 더 많았기 때문에 평가에 차이가 일어난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조건 1에서는 집단 A(B)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 8(4)개와 A(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 2(1)개, 집단 C(D)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 1(2)개와 C(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 4(8)개를 제시했다. 따라서 조건 1에서는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이 집단 A와 집단 B는 4:1로, 집단 C와 집단 D는 1:4로 동등했다. 조건 1에서는 집단 B와 집단 C가 소수집단이 된다. 그러나 피험자가 제시받는 정보는 바람직한 행동이 15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15개로 동등하다. 따라서 소수집단은 있지만 소수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Hamilton과 Gifford(1976)의 논리라면 이 조건에서는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집단 A와 집단 B간의 평가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집단 C와 집단 D간의 평가에도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평가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량간의 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집단 A, B, C, D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조건 2에서는 집단 A(B)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 8(4)개와 A(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 4(1)개, 집단 C(D)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 1(4)개와 C(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 4(8)개를 제시했다. 따라서 조건 2에서는 바람직한 행동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이 집단 B는 4:1, 집단 A는 2:1, 집단 D는 1:2, 집단 C는 1:4였다. 그러나 피험자가 제시받는 정보는 바람직한 행동이 17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17개로 동등하다. 따라서 집단소속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독특성이 공발생하는 조건이 아니다. 결국 Hamilton과 Gifford(1976)의 논리라면 이 조건에서는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따라서 집단 B, A, D, C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평가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량간의 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조건 2에서도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량간의 차는 조건 1과 동일하기 때문에 평가도 조건 1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 A, B, C, D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조건 3에서는 집단 A(B)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

8(8)개와 A(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 4(2)개, 집단 C(D)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 2(4)개와 C(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 8(8)개를 제시했다. 따라서 조건 2에서는 바람직한 행동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이 집단 B는 4:1, 집단 A는 2:1, 집단 D는 1:2, 집단 C는 1:4였다. 그러나 피험자가 제시받는 정보는 바람직한 행동이 22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22개로 동등하다. 따라서 집단소속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독특성이 공발생하는 조건이 아니다. 결국 Hamilton과 Gifford(1976)의 논리라면 이 조건에서는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따라서 집단 B, A, D, C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평가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량간의 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조건 3에서는 각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이 조건 2와 동일하지만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량의 차는 조건 2와는 달리 집단 A와 집단 B간의 차가 없고 집단 C와 집단 D간의 차이가 없으므로 집단에 대한 평가는 집단 A와 B간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집단 C와 D간에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 A와 B를 집단 C와 D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실험 2의 예언은 다음과 같다.

1. 조건 1에서는 집단 A, B, C, D의 순으로 바람직한 집단으로 평가할 것이다.
2. 조건 2에서는 집단 A, B, C, D의 순으로 바람직한 집단으로 평가할 것이다.
3. 조건 3에서는 집단에 대한 평가는 집단 A와 B간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집단 C와 D간에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 A와 B를 집단 C와 D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4. 추정오류는 과제의 성격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아도 각 조건에서 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 방법 및 절차

### 피험자

91년도 1학기 연세 대학교에서 개설된 「인간 행동의 심리적 이해」 수강생과 심리학과 1, 2학년 중 101명이

피험자로 참가하였다. 한번에 2-10명씩 무선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자극재료**

조건 1, 2, 3에서 피험자에게 제시된 각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의 수는 표 2-1과 같다.

실험 1에서의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에서 집단 A, B, C, D의 바람직한 행동기술문간의 평균 바람직성의 정도를 동일하게 만들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간의 평균 바람직성의 정도도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각 조건에서, 각 집단에 대한 행동기술문의 내용이 다른 두가지 종류의 책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책자는 각 조건에서 집단 A와 집단 B의 행동기술문을 서로 바꾸고, 집단 C와 집단 D의 행동기술문을 서로 바꾸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각 집단내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각각의 반은 사회적인 행동이었고 나머지 반은 지적인 행동이었다. 그런데 조건 1과 2의 집단 B와 C 처럼 정보를 1개만 제시할 경우에는 실험자극의 한 세트는 지적인 행동으로 다른 세트는 사회적인 행동으로 만들었다.

<표 2-1> 실험 2의 각 조건에서 제시된 행동기술문의 수

	행동기술문의 바람직성	집 단			
		A	B	C	D
조건 1	바람직	8	4	1	2
	비바람직	2	1	4	8
조건 2	바람직	8	4	1	4
	비바람직	4	1	4	8
조건 3	바람직	8	8	2	4
	비바람직	4	2	8	8

**절차**

지시문에서 집단을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험 1과 동일했다.

본 실험에서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행동기술문은 어떤 네집단 성원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인데,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실험에서 그들은 단지 집단 A, 집단 B, 집단 C, 집단 D라고만 언급됩니다.

**종속측정**

실험 1과 동일했고 단지 네개의 집단에 대해서 집단 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와 빈도추정과제 그리고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정을 했다는 것만이 달랐다.

**결 과**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

각 조건에서 실제로 제시했던 4(집단: 집단 A, B, C, D)×2(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로 구성되는 여덟가지 범주의 정보 각각의 수와 피험자가 판단한 여덟가지 범주의 행동의 수와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위해서 t 검증을 실시했다. 집단 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의 평균은 표 2-2에 제시했다.

<표 2-2> 실험 2의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의 평균

조건	행동기술문의 바람직성	집 단			
		A	B	C	D
조건 1	바람직	5.97*** (2.51)	4.08 (1.48)	2.56*** (1.58)	2.39 (1.87)
	비바람직	2.14 (1.76)	2.42*** (1.56)	4.00 (1.49)	6.44*** (2.67)
조건 2	바람직	5.91*** (2.26)	4.35 (1.74)	3.00*** (2.04)	3.74 (2.02)
	비바람직	3.00** (1.89)	3.47*** (2.15)	4.71 (2.66)	5.82*** (2.49)
조건 3	바람직	6.74* (2.58)	7.23 (2.40)	4.26*** (2.16)	3.77 (1.94)
	비바람직	4.48 (2.38)	4.03*** (2.47)	7.48 (2.71)	6.00** (3.19)

( )는 표준편차. \* p<.05 \*\* p<.01 \*\*\* p<.001

결과를 보면 조건 1에서 피험자가 판단한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집단 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집단 C의 바람직한 행동 그리고 집단 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97(2.51), 2.



42(1.56), 2.56(1.58), 6.44(2.67)로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5)=-4.84, p<.001, t(35)=5.46, p<.001, t(35)=5.92, p<.001, t(35)=-3.50, p<.001$ ]. 하지만 나머지 범주에서는 피험자가 판단한 것과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건 1에서는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았지만,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집단 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과소추정하고, 집단 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집단 C의 바람직한 행동을 과대추정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조건 2에서는 피험자가 판단한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집단 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집단 C의 바람직한 행동, 그리고 집단 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5.91(2.26), 3.00(1.89), 3.47(2.15), 3.00(2.04), 5.82(2.49)로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3)=-5.38, p<.001, t(33)=-3.08, p<.001, t(33)=6.70, p<.001, t(33)=5.70, p<.001, t(33)=-5.09, p<.001$ ]. 하지만 나머지 범주에서는 피험자가 판단한 것과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건 2에서도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았지만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집단 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과소추정하였다. 그리고 집단 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집단 C의 바람직한 행동을 과대추정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조건 3에서는 피험자가 판단한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집단 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집단 C의 바람직한 행동 그리고 집단 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6.74(2.58), 4.03(2.47), 4.26(2.16), 6.00(3.19)로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0)=-2.71, p<.05, t(30)=4.58, p<.001, t(30)=5.82, p<.001, t(30)=-3.49, p<.01$ ]. 하지만 나머지 범주에서는 피험자가 판단한 것과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건 3에서도 집단소속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집단 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과소추정하고, 집단 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집단 C의 바람직한 행동을 과대추정했다.

#### 빈도추정

빈도추정과제도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했다. 빈도 추정과제의 평균은 표 2-3에 제시했다.

<표 2-3> 실험 2의 빈도추정과제 평균

	행동기술문의 바람직성	집 단			
		A	B	C	D
조건 1	바람직	7.17** (1.50)	3.03*** (1.06)	2.28*** (1.11)	3.78*** (1.61)
	비바람직	2.83** (1.50)	1.97*** (1.06)	2.72*** (1.11)	6.22*** (1.61)
조건 2	바람직	7.88 (1.32)	2.65*** (.85)	2.21*** (.98)	5.09** (1.99)
	비바람직	4.12 (1.32)	2.35*** (.85)	2.79*** (.98)	6.91** (1.99)
조건 3	바람직	7.77 (1.87)	6.32*** (1.78)	4.48*** (1.73)	6.29*** (2.69)
	비바람직	4.23 (1.87)	3.68*** (1.78)	5.52*** (1.73)	5.71*** (2.69)

( )는 표준편차. \*\*  $p<.01$  \*\*\*  $p<.001$

결과를 보면 조건 1에서 피험자가 판단한 각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집단 A의 경우에는 각각 7.17(1.50), 2.83(1.50)으로, 집단 B의 경우에는 각각 3.03(1.06), 1.97(1.06)으로 모두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5)=-3.33, p<.01, t(35)=3.33, p<.01, t(35)=-5.53, p<.001, t(35)=5.53, p<.001$ ]. 그리고 집단 C의 경우에는 각각 2.28(1.11), 2.72(1.11)로, 집단 D의 경우에는 각각 3.78(1.61), 6.22(1.61)로 모두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5)=6.90, p<.001, t(35)=-6.90, p<.001, t(35)=6.64, p<.001, t(35)=-6.64, p<.001$ ]. 따라서 조건 1에서는 각 집단내에서 다수정보는 과소추정하고 소수정보는 과대추정하는 오류가 발

생했다. 예언대로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아도 빈도추정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조건 2에서는 피험자가 판단한 집단 B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65(.85), 2.35(.85)로 모두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3)=-9.30, p<.001, t(33)=9.30, p<.001$ ]. 하지만 피험자가 판단한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집단 C의 경우에는 각각 2.21(.98), 2.79(.98)로, 집단 D의 경우에는 각각 5.09(1.99), 6.91(1.99)로 모두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3)=7.19, p<.001, t(33)=-7.19, p<.001, t(33)=3.19, p<.01, t(33)=-3.19, p<.01$ ]. 따라서 조건 2에서도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A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그 집단내에서 다수정보는 과소추정하고 소수정보는 과대추정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조건 3에서는 피험자가 판단한 집단 B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6.32(1.78), 3.68(1.78)로 모두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0)=-5.25, p<.001, t(30)=5.25, p<.001$ ]. 하지만 피험자가 판단한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집단 C의 경우에는 각각 4.48(1.73), 5.52(1.73)으로, 집단 D의 경우는 각각 6.29(2.69), 5.71(2.69)로 모두 실험에서 실제로 제시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30)=8.00, p<.001, t(30)=-8.00, p<.001, t(30)=4.75, p<.001, t(30)=-4.75, p<.01$ ]. 따라서 조건 3에서도 집단 A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그 집단내에서 다수정보는 과소추정하고 소수정보는 과대추정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결국 조건 3의 빈도추정과정에서도 부호화 단계에서는 집단소속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의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아도 추정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가

세가지 정보조건에 따라 집단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발생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3(정보조건)×4(집단)

의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집단은 반복측정되는 변인이다. 결과를 보면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했고,  $F(3, 294)=52.83, p<.001$ ,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정보조건과 집단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 $F(6, 294)=2.82, p<.05$ ].

<표 2-4> 실험 2의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균

	집단 A	집단 B	집단 C	집단 D
조건 1(n=36)	8.81 (1.60)	6.83 (1.84)	5.44 (1.56)	4.28 (2.13)
조건 2(n=34)	7.91 (1.75)	6.35 (1.54)	5.30 (1.62)	4.62 (2.20)
조건 3(n=31)	7.39 (2.28)	7.13 (2.16)	5.39 (1.80)	5.65 (2.12)

( )는 표준편차.

이상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예언에 기초해서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균간의 대비를 실시하였다. 조건 1에서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집단 A를 8.81(1.60)로 집단 B의 6.83(1.84)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F(1, 35)=29.95, p<.001$ , 집단 B를 집단 C의 5.44(1.56)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F(1, 35)=9.96, p<.01$ , 집단 C를 집단 D의 4.28(2.13)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F(1, 35)=5.52, p<.05$ ]. 따라서 조건 1에서는 예언대로 집단 A, B, C, D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조건 2에서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집단 A를 7.91(1.75)로 집단 B의 6.35(1.54)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F(1, 33)=14.06, p<.001$ , 집단 B를 집단 C의 5.30(1.62)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F(1, 33)=6.13, p<.05$ ]. 그러나 집단 C와 D에 대한 평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조건 2에서는 예언대로 집단 A, B, C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예언과 달리 집단 C를 D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조건 3에서는 집단 A와 집단 B에 대한 평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집단 C와 집단 D에 대한 평가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집단

B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7.13(2.16)으로 집단 C의 5.39(1.80)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1, 30)=11.79, p<.01$ ]. 따라서 조건 3에서는 예언대로 집단 A와 B간의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집단 C와 D간의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집단 A와 B를 집단 C와 D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논 의

실험 2는 집단간의 상대적 평가의 결정요인이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량의 차이일 것이라는 예언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결과는 조건 2에서 집단 C와 D간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예언과 일치하게 나왔다. 즉, 집단간 평가의 결정요인으로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량의 차가 이용되었다. 이는 조건 1과 같이 두 집단간의 행동의 바람직성의 비율이 동등할 때에도 일어났고 조건 2와 같이 행동의 바람직성의 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두 집단에 대한 평가가 그 집단을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정보량의 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조건 2에서와 같이 실제 비율상에서는 B보다 더 부정적인 집단인 A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더욱 흥미로운데, 만약 두 집단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집단이라면 다수집단이 실제 비율상으로는 더 부정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두 집단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집단이라면 다수집단이 실제 비율상으로는 더 긍정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집단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건 3에서 처럼 두집단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정보의 양이 똑같다면 사실은 비율상으로 집단 B에 비해 더 부정적인 집단인 A도 집단 B와 동등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또 한 두 집단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집단인데, 부정적인 정보의 양이 똑같다면 한 집단이 긍정적인 행동을 다른 집단에 비해서 두배나 더 많이 해도 평가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 2의 3가지 조건 모두에서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의 독특성이 공발생하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빈도추정과제와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는 소수집단의 회귀성 정보가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한 자극으로 더 잘 부호화되기 때문에 착각적 상관이 일어난다는 가정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기존의 착각적 상관연구에서 나타난 추정과 재인의 오류는 종속추정의 과제성격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에서는 조건 2에서 집단 A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과소추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조건에서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집단 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과소추정하고, 집단 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집단 C의 바람직한 행동은 과대추정했다.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의 이러한 결과는 집단 A, B, C, D의 바람직한 정보중 가장 소수정보인 집단 C의 바람직한 행동을 과대추정하고, 가장 다수정보인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은 과소추정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단 A, B, C, D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중 가장 소수정보인 집단 B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과대추정하고, 가장 다수정보인 집단 D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과소추정한 것이다. 이는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의 성격이 바람직한 행동을 집단 A, B, C, D간에 나누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집단 A, B, C, D간에 나누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집단의 정보중 가장 많은 정보는 과소추정하고 가장 적은 정보는 과대추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빈도추정과제에서는 조건 2와 3의 집단 A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의 각 집단내에서 다수정보는 과소추정하고 소수정보는 과대추정했다. 이는 빈도추정과제의 성격이 집단내에서 나누는 과제이기 때문에 각 집단내에서 다수정보는 과소추정하고 소수정보는 과대추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집단소속에 대한 재인과제와 빈도추정과제의 결과를 본다면 재인과 추정의 오류는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성격, 즉 집단간으로 나누는 재인과제인가 집단내에서 나누는 빈도추정 과제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빈도추정과제에서의 오류가 실험 1과 전우영과 이훈구(1991)에서 처럼 집단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과제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이후의 연구에서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 종합논의

이상의 실험 1, 2의 결과를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연구를 토대로 종합해 보면 집단에 대한 평가는 두 집단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정보량의 차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것이 두 집단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집단에 대한 평가는 두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 정보가 부정적 정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두 집단을 대표하는 긍정적 정보량간의 차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정보량간의 차가 커질수록 긍정적 정보가 많은 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긍정적 정보가 더 적은 집단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에 대한 평가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이때는 상대적 비교의 결정요인은 두 집단을 대표하는 부정적인 정보량간의 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정적 정보량간의 차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정보가 더 많은 집단을 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인 정보가 더 적은 집단을 상대적으로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각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만을 토대로 하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한다면, 이는 다수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그리고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매우 쉽게 형성되는 반면 그것의 수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Hamilton과 Gifford(1976)의 가정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보다 많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두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집단은 단지 긍정적인 정보의 절대량이 다수집단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수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집단이거나 동일한 정도로 바람직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소수집단이 부정적인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이 일단 형성되면, 실험 2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집단이라면 그 집단이 행한 바람직한 행동의 양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소수집단이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해도 그것이

부정적인 평가를 수정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식의 정보처리 는 다수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고정관념의 형성을 유도 할 수 있다. 즉 다수집단은 비율상으로 똑같은 정도로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정보의 절대량이 소수집단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일단 다수집단이 긍정적인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다수집단의 부정적인 행동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수집단은 긍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집단이 그 사회의 지배집단임을 가정하면,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유지와 다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의 유지는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다수집단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가 사회변동을 통해서 그 사회를 지배하는 다수집단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다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영원히 수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만약 다수집단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다수집단에 대한 평가가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바뀐다면 결과는 매우 혁명적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수집단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집단이라면 소수집단보다 다수집단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실험 2의 결과를 감안하면, 한 사회를 지배해오던 다수집단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되면 다수집단은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다수집단을 교체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집단대표 정보량간의 차에 의해서 집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정보처리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즉 모든 정보를 집단별로 분류해서 각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단대표 정보량간의 차에 기초한 평가의 또 다른 가능성은 본 연구의 실험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기술문이 자극 자체의 특출성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극단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자극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험자로 하

여금 소수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인식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몇개의 바람직한 행동이 평가를 수정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까닭도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에 극단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중속 측정의 성격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집단에 대한 평가만을 유도했기 때문에 집단대표 정보 이외의 정보를 평가에 이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피험자로 하여금 강제로 바람직한 집단의 순위를 정하게 한다든지 또는 실질적인 보상을 분배하게 한다면 피험자는 여러 집단중에서 어느 집단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는 집단대표 정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보까지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예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집단대표 정보량에만 기초해서 여러 정당을 평가함으로써 실제로는 비율상에서 바람직성의 정도가 다른 정당들을 모두 똑같은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지하지 않는 정당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하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평가를 할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모든 정보들을 고려해서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집단대표 정보량에 의한 판단이 되는 가장 극단적인 조건은 실험 1에서 집단 A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이 16:12이고, 집단 B는 8:4였던 경우였다. 그러나 만약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이 집단 A는 100:90이고 집단 B는 90:1인 경우에도 집단대표 정보량에 의해서 집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까지 집단대표 정보량에 기초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평가는 부호화 단계에서 소수집단과 회귀성 정보의 연합된 정도를 과대지각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재인과 추정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실험 2의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오류가 과제의 성격에 의존한다는 추론을 가능케 했다.

따라서 미국사회에서 흑인은 백인보다 소수이고 바람직한 행동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소수이기 때문에 흑인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연합된 정도가 과대지각되고, 그 결과로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된다는 Hamilton과 Gifford(1976) 등의 설명은 수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다수집단인 백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정보가 흑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정보보다 많기 때문에 백인을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흑인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 적절할 것이다. 전우영과 이훈구(1991)의 가정처럼 미국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백인들이 T.V.나 언론매체 등을 지배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정보기관이 그것을 지배하는 집단을 바람직한 것으로 묘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현실적인 정보는 비율상 동등한것이 아니라 백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쪽으로 편파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행동의 바람직성의 비율상 더 부정적인 다수집단이 단지 긍정적인 집단대표 정보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실험실 상황에서 소수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다수집단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정보가 소수집단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정보보다 훨씬 많아서 비율상으로도 다수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묘사될 현실 사회에서는 이러한 다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경향이 더욱 강하게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전우영 · 이훈구(1991). 착각적 상관성이 개인의 집단지각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 비판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 6(1), 58-72.
- Acorn, D.A., Hamilton, D.L., & Sherman, S.J. (1988). Generalization of biased perceptions of group based on illusory correlations. *Social Cognition*, 6, 345-372.
- Chapman, L.J.(1967). Illusory correlation in observational report.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6, 151-155.
- Hamilton, D.L., Dugan, P.J., & Trolie, T.K. (1985). The formation of stereotypic beliefs: Further evidence for distinctiveness-based illusory correlation. *Journal of Per-*

- 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5-17.
- Hamilton, D. L., & Gifford, R. K. (1976). Illusory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 cognitive basis of stereotypic judg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392-407.
- Pryor, J. B. (1986). The influence of different encoding sets upon the formation of illusory correlation and group impre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216-226.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196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677-688.
- Rothbart, M. (1981). Memory processes and social beliefs.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pp. 145-181). Hillsdale, NJ: Erlbaum.
- Sanbonmatsu, D. M., Sherman, S. J., & Hamilton, D. L. (1987). Illusory correlation in the perception of individuals and groups. *Social Cognition*, 5, 1-25.
- Schaller, M., & Maass, A. (1989). Illusory correlation and social categorization: Toward an integration of motivational and cognitive factors in stereotype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09-721.
- Spears, R., van der Pligt, J., & Eiser, J. R. (1985). Illusory correlation in the perception of group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863-875.

The Effects of the Numbers of Informations Representing Group  
on the Subjects' Formation of Group Stereotypes :  
Illusory Correlation and Subjects' Evaluations of Groups

Woo-Young Chun and Hoon-Ko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In two experiments we investigated the cause of the subjects' evaluations of groups in illusory correlation paradigms. In experiment 1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numbers of stimulus informations favored group A or group B. However group A was evaluated more positively than group B. This result showed that the subjects' differential evaluations found in illusory correlation paradigms were not caused by the differences in the numbers of relative informations presented as was assumed in the Woo-Young Chun and Hoon-Koo Lee(1991). The experiment 2 showed that subjects' differential evaluations of the two groups were caused by the differences in the numbers of informations representing group which influence the subjects to evaluate the nature of a group as "good" or "bad". Also, as i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of Woo-Young Chun and Hoon-Koo Lee(1991), even in the absence of the distinctiveness co-occurrence in the encoding stage, the subjects' errors of estimation and recognition errors occurred and the differential evaluation of the group was maintained. These results altogether suggest that the evaluations of groups and perceptual errors are not the result of the subjects' overestimation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inority group and infrequent informations in the encoding stage. Implications of the experiments for the formation of group stereotypes are discussed.